

“첫 골은 내가 먼저”... 손흥민·황희찬 EPL ‘코리안 더비’



손흥민

20일 토트넘 스타디움서 EPL 3라운드 이번 시즌 득점 없이 도움 1개씩만 기록

‘시즌 마수걸이 득점은 내가 먼저!’ 손흥민(30·토트넘)과 황희찬(26·울버햄프턴)이 ‘코리안 더비’에서 시즌 첫 골을 정조준한다.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은 20일(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를 치른다. EPL 무대를 누비는 두 한국인 공격수, 토트넘 손흥민과 울버햄프턴 황희찬이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득점 없이 도움만 1개씩 올려 ‘시즌 1호골’ 신고를 향한 의지가 크다. 둘 중 누가 먼저 득점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코리안 더비’를 펼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황희찬이 지난 시즌 울버햄프턴에 입단한 가운데, 지난해 9월 리그컵 32강전에서 둘의 첫 대결이 성사됐다. 둘은 EPL에서는 올해 2월 25라운드에서 처음 맞붙었다.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둘 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현재 팀 분위기는 토트넘이 낫다. 개막전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시원하게 4-1 승리를 거둔 토트넘은, 런던 라이벌 첼시와 2라운드에서는 극적인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활동량을 뽐낸 히사롤리송, 정교한 킥력을 자랑한 이반 페리시치 등 이적생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시즌 초반이다. 손흥민의 ‘짜깁’ 이자 잉글랜드의 ‘왕’인 해리 케인은 첼시전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로 마수걸이 득점에 성공했다. 첼시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인 손흥민이 이번 울버햄프턴전에서 득점 포를 가동한다면 토트넘에 금상첨화가 될 터다. 지난 시즌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을 향한 다른 팀들의 견제가 부쩍 심해졌다. 손흥민과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개막 1무 1패를 기록 중인 울버햄프턴은 분위기 반전에 도전한다. 울버햄프턴은 골 결정력 부족과 수비 실수 탓에 승리를 수확하지 못했다. 황희찬은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좋은 움직임을 보였으나 팀 공격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아직 덜 여문 느낌이다.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인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빈자리가 아쉽다. 다만, 아다마 트라오레, 곤살루 게스 등 다른 공격수들도 토트넘 같은 강팀을 상대로 언젠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연합뉴스



황희찬



임기영

KIA 김도영 부상... 손바닥 10바늘 꿰매

KIA 타이거즈의 ‘슈퍼 루키’ 김도영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다. 김도영은 지난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즌 13차전에서 경기 도중 교체됐다. 이날 3루수 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이 2회 초 라가레스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다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바로 류지혁과 교체된 김도영은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인대 손상과 골절 부상은 피했지만 10바늘 정도를 꿰맸다. 김중국 감독은 18일 “2주 정도 후에 실밥을 풀어야 한다. 20일 정도 공백이 있을 것이다”라며 김도영의 부상 상황을 설명했다. 또 “내일부터 재활군에 합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러닝, 하체 운동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다. 한 손 배팅 등 상황에 따라서 훈련을 한 뒤 이후에 게임 도 뛰어보고 퓨처스 경기도 하고 나서 풀업이 될 것 같다”며 “대주자는 김호영이 역할을 할 것 같다. 주전 선수들이 더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경험이 쌓이면서 김도영이 공수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팀은 물론 개인으로도 아쉬운 부상이 됐다. 부상으로 해체된 ‘JJJ 트리오’는 정해영의 복귀를 시작으로 9월 중순 완전체가 될 전망이다. 김중국 감독은 “정해영이 다음 주 초에는 복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주까지는 상황에 맞게 불펜 투수들을 골고루 투입할 것이다”며 “전상현은 검진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내일부터 단계적 투구 훈련(ITP)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볍게 토스부터 들어가서 이후 퓨처스리그에서 투구도 하고 9월 중순에는 돌아올 전망이다”고 밝혔다. 전상현에 앞서 장현식의 복귀가 예상된다. 장현식도 가벼운 훈련에 돌입하면서 빠르면 이달말 전력에 합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해영을 시작으로 장현식, 전상현이 순서대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KIA는 최악의 불펜 공백 우려를 지울 수 있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생애 첫 세이브 ... 임기영의 유쾌한 경험



보는 이들에게는 심장 떨리는 장면이었지만 주인공이 된 임기영은 “재미 있었다”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7일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4-3 승승을 거뒀다. 1회초 나성범이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 김광현을 상대로 홈런을 강타한 3점포를 날렸지만 승리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김광현이 1회 이후 7회까지 실점 없이 버텼고 KIA 불펜진 난조와 박찬호의 아쉬운 실책으로 8회초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동점 빌미를 제공한 박찬호가 8회말 속죄의 적시타를 날리면서 4-3에서 시작된 9회초, 필승조의 동반 부상 이탈 속 임기영이 마무리로 등장했다. 오는 21일 KT원정 선발로 예정된 임기영은 지난 12일 두산전에 이어 두 번째 구원 등판에 나섰다. 이날 경기 전 김중국 감독이 임기영의 불펜 기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마무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임기영은 선두타자 최지훈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지만 최정에게 좌측 펜스 패리는 2루타를 허용했다. 오태곤의 유격수 땅볼로 2사 3루, 임기

SSG전 9회 마무리로 등판 프로 176번째 경기만에 기록 “불펜 투수들의 고충 느꼈다”

영은 김강민의 땅볼을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1점 차 승리를 지켰다. 이와 함께 2012년 한화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176번째 경기에 나선 임기영의 생애 첫 세이브가 기록됐다. 임기영은 “조금이라도 팀에 보탬이 돼서 좋다. 재미있었다. 필승조가 다 빠진 상태인데, 빠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 듣기 싫었고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 싶었다. 최종 선배한테 안타 맞고 나서도 부담됐던 것은 없었다.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등판에 앞서 몸 풀면서 역전해서 내가 세이브 하고 싶다는 생각이 했다. 세이브가 없었는데 세이브를 했다. (황)대인이가 공도 쟁거렸다 (웃음).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한편으로는 불펜 투수들의 고충도 느꼈다. 임기영은 “불펜에서 2경기를 하면서 중간 투수들의 힘든 것도 알게 됐다. 몸 풀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타이탄 상황에서 나가니까 심적으로 힘들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많은 걸 느꼈다”고 언급했다. 임기영은 이제 선발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4위 KT와는 더 멀어지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인 만큼 다음 등판에서 선발 싸움을 해주면서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 “올 시즌 승욕심은 없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승리가 아쉽다. 임기영은 올 시즌 두 차례 불펜 등판 포함 18경기에 나와 4.04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8패 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부상 없이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주고 있지만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다. 임기영은 “승리가 6월 이후로 없더라. 패배에 없는데 세이브 기록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 세이브를 기록했다”며 “선발에서 잘 된 지다가 중간에 확 무너져서 지는 경기가 많았다. 기록적인 면은 지난해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훈련한 번에 무너지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 줄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승욕심은 없다. 당연히 승리하면 좋지만 나 혼자만의 욕심이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 팀 승리 생각하면서 하면 기록이 따라올 것이다”며 “주위에서는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내 운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 내 복이다. 내가 할 것만 하면 된다. 팀 5강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서울·전남 드래곤즈 김포 원정

20·21일 K리그2 34라운드

광주FC가 ‘왕좌’를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한다. 광주는 오는 20일 오후 7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K리그2 34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 17일 안양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엘리트더비’에서 산드로의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32라운드 안산 원정에서도 수적 우위 속 경기를 주도하고도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기고 있을 때 더 공격적으로 우리만의 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이정호 감독은 서울 원정에서 광주만의 승리 만들기 나선다. 앞선 전남전을 끝으로 광주는 3라운드 로빈을 마쳤다. 이제 광주는 4라운드 로빈에 들어가 각 팀과의 마지막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번 원정에서는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캡틴’ 안영규가 돌아온다.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준 정호연과 이순민까지 가세해 짜임새를 더한 광주에는 산드로의 활약도 반갑다. 산드로는 최근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광주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에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한 적

이 없다. 역대 전적에서 8승 3무를 기록하면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두 경기 연속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가 ‘초심’으로 ‘끝까지 가는 승부’를 하면서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물오른 임찬울을 앞세워 김포 원정에 나선다. 전남은 21일 오후 8시 김포솔터축구장에서 김포FC를 상대로 승리 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광주전 1-1 무승부를 포함해 최근 16경기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승리에 목마른 전남이지만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광주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 이른 시간에 실점해서 선수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만회골을 통해 다시금 경기력을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1위 팀을 상대로 승점을 보낸 전남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 특히 임찬울이 후반 29분 광주의 승리를 저지하는 동점골을 기록하는 등 3경기 연속 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상생세의 임찬울을 앞세워 김포 열세 만회에 나선다. 광주를 상대로 자신감을 더한 전남이 무승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